

일본어 특수박의 지속시간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분석

김선희(수원대)

<차 례>

- | | |
|--------------------|-----------|
| 1. 머리말 | 3.1. 피험자 |
|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목표 | 3.2. 실험대상 |
| 2.1. 선행연구 | 3.3. 분석방법 |
| 2.2. 본 연구의 목표 | 4. 결과 |
| 3. 실험방법 | 5. 고찰 |

<Abstract>

An acoustic study on the duration of the mora in Japanese

Seonhi Kim

It is well known that Japanese prosodic structure assumes mora below the syllable tier. Syllables with V or CV structure are counted as having one mora whereas those with coda consonants /-pp, -tt, -kk, -ss, -N/ or long vowels are counted as having two moras in Japanese. This study measured the acoustic duration of these special moras ('tokusyuhaku') produced by Tokyo dialect speakers to see if they are isochronic with V or CV. It also examined the production of Korean(Seoul/Kyungsang dialect) and Chinese native speakers learning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to examine how the learners' first language influence their second language. Finally, it examined how speakers of the Akita dialect, which is known as a syllabeme dialect in Japanese, produced them. The results showed that intra-speaker variation as well as inter-speaker variation was observed in the production by Akita dialect speakers. Production of native speakers of Chinese and Kyungsang dialect of Korean -- which have vowel length contrast in their phonological systems -- showed a similar result to Tokyo dialect speakers, which implies the influence of the learners' first language on the acquisition of the second language.

1. 머리말

일본어는 일반 언어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특이한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절의 대부분이 V 또는 CV로 구성되어 있는 개음절(開音節)의

형태를 띤다. 그런데 여기에는 음절이라는 개념과 또 다른 음 단위¹⁾를 설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해석도 다양하다. 일본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특수음소라 불리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장모음과, 자음 음소로서는 음절말의 비음(-m,-n,-ŋ,-N)(일본어에서는 撥音이라 불림)과, 자음이 겹쳐서 나타나는 겹자음(중자음, geminate) (-)p,-(t)t,-(k)k,-(s)s-(일본어에서는 促音이라 불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음 단위의 특수성에 대해, 일반적인 최소의 음성단위인 음절이라는 용어 대신 박(拍)(龜井, 1956; 金田一, 1967) 또는, 모라(モーラ)(服部, 1960)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수한 음소로 구성된 박을 특수박이라 부르기도 한다. 용어가 지니는 개념이나 그 범위에는 학자들간에 다소 차가 있으나 음 단위를 가리키는 대상은 마찬가지로 보편 될 것이다.

그러면 특수박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1)발화시 특수박이 차지하는 지속시간이 한 개의 독립된 음절과 동일한 지속시간을 가진다는 것이고, 2)이는 일본의 문자인 가나문자의 하나의 단위이기도 하며, 3)전통적인 일본의 시가(俳句)에서 말하는 독립된 리듬 단위이며, 4)악센트가 부여되는 단위이기도 하고, 5)이들 단위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변별기능이 있으며, 6)특수박은 서로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독립적이라는 것 등이다.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목표

2.1. 선행연구

선행연구로는 방법론적으로 볼 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일본어에서 특수 음소라는 독립된 단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개념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근년의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된 연구로, 그러한 개념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에 관하여 논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계량적 연구를 한 것을 들 수 있다. 전자에 관하여는 머리말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본 논문의 중심은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고찰 부분에서 언급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그런데 선행연구들로는, 일괄적으로 특수박 전체를 관찰대상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장모음, 음절말의 비음, 그리고 겹자음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관찰해 왔다고

1) 음성단위 : 일반적으로 최소의 음성 단위를 음절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어에서는 박(拍)또는 모라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이는 Trubetzkoy(1958)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에서도 동일한 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볼 수 있다.

Sato(1993)의 연구에서는, 음절말(syllable-final) 비음과 음절머리(syllable-initial)의 비음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V 또는 CV음절의 지속시간과도 비교했다. 또한, 관찰대상을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하여 언어간의 비교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자음이나 모음의 고유의 지속시간이 있다(김선희, 1993b). 그렇게 보았을 때 비음의 발화의 지속시간이나 폐쇄음의 폐쇄구간은 자음의 전체의 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다른 자음에 비해 길게 나타난다. 그러나 Sato(1993)에서는, 동일한 음절말의 위치에 속하는 비음의 지속시간을 측정대상으로 하고, 또 폐쇄음에 있어서는 홀자음과 겹자음일 때의 시간을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언어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음 고유의 길이는 한국어의 경우가 가장 길고, 일본어, 영어의 순이었다. 그런데, 음절말 비음과 음절머리의 비음과의 길이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일본어가 2.39:1로 음절머리의 비음에 대한 음절말의 비음의 길이의 비율이 가장 크고, 한국어는 1.79:1, 영어는 1.36:1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일본어에 있어서는 음절말 자음의 길이가 하나의 모라로 취급될 만큼의 충분한 길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된 모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같은 입장에 선 연구로는, 모음과 폐쇄음의 지속시간을 관찰한 Homma(1981)가 있다. 이에 반해 Beckman(1982)에서는 폐쇄음의 지속시간이 한 개의 독립된 음절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길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여, 축음에 대해서 모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Han(1992)의 연구에서는, 겹자음과 단일 폐쇄음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있는데, 일본인 화자와 미국인 유창한 일본어 화자와 비교하여 발음 경향을 관찰했다. 여기서는 VOT치를 모음에 넣을 것인가, 자음에 넣어서 계산할 것인가에 관하여 깊이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폐쇄음의 조음점의 차이에 따른 시간차도 관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과 미국인 화자를 비교해 보면, 일본인 화자의 발화에 있어서, 겹자음과 홀자음의 폐쇄구간의 비율을 보면 2.8:1인데 비하여, 미국인 화자에 있어서는 2.0:1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그 차이가 주목된다.

杉藤(1991)에서는, 박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수를 증가시키며 그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였고, 동경방언 화자와, 關西방언 화자 그리고 영어 사용자의 발화를 서로 비교했다. 그 결과, 일본인 화자에 있어서는 방언의 차에 상관없이 박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시간이 정비례로 증가됨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박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는 일본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특수박의 기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악센트가 놓여지는지 어떤지를 보고 있는데, 특히 關西방언에서는 특수박 위에 악센트가 놓

여지는 단어의 예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는 젊은 화자일수록 특수박에 있던 악센트가 바로 앞의 박으로 이동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이 杉藤(1986)에서 구체적으로 시사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며, 모라에 관한 재해석의 근거가 되리라 본다.

2.2. 본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축음의 홀자음과 겹자음의 폐쇄구간의 시간차를 측정하고, 발음(撥音)이 나타나는 음절과 그렇지 않은 음절과의 시간차를 측정 비교하고, 또 장모음과 단모음의 시간차를 측정 비교한다. 상호간의 시간차를 비교하는 것은, 일본어의 축음, 발음(撥音), 장음을 독립된 시간단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밝혀나가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과정은 우선 동경 방언의 발음 경향을 관찰하고, 독립된 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힌다. 그리고 일본어로 의사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외국인(한국인과 중국인)의 발음 경향을 관찰한다. 그리고 紫田(1962)의 연구에 의해 일본어의 Syllabeme 방언²⁾으로 간주되고 있는 秋田방언의 시간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기존 학설의 타당성의 여부를 밝힌다.

3. 실험방법

3.1. 피험자

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경방언의 특수박의 지속시간을 관찰하기 위하여 20대 후반의 동경방언 화자 2명과,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 경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한국인 학습자 5명(이때 모국어의 방언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지 살피기 위해 서울방언 화자(CK, KJ, KO)와 경상도방언 화자(KH, YM)로 나누고 있다)과, 중국인 학습자 2명(LM, YP)의 발음을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학습력이 3년 이상의 화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일본어의 Syllabeme 방언에 속하는 秋田방언 화자 2명의

2) Syllabeme 언어: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박(모라)이 일정한 하나의 길이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언어(拍言語)라고 하는데 비해, 일부 지역에서는 장음, 발음, 축음 등의 특수박이 가지는 길이가 한 개의 박으로 취급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하여, 그러한 방언을 Syllabeme 방언이라고 불렀다. 이에 속하는 방언으로는, 큐슈의 남부의 일부지역과 秋田와 靑森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 등을 들고 있다.

발음을 녹음하여 분석했다.

3.2. 실험대상

특수박에 의해 의미가 구별되는 최소대립어를 각각의 문장 안에서 발화할 경우와 단어 단독으로 발음할 경우의 발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제의 발화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단어나 문맥은 모두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선정했다. 실험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korewa supai rasi: 이것은 스파이인 것 같다.
korewa suppai rasi: 이것은 신 것 같다.
2. tyotto kite kudasai 잠깐 와 주세요.
tyotto kitte kudasai 우표 좀 주세요.
3. kono doawa totemo tsukamenai 이 문은 도저히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
kono doawa tottemo tsukamenai 이 문은 손잡이가 잡히지 않는다.
4. kokode ikini tsikarawo irete kudasai 여기서 호흡할 때 힘을 넣어 주세요.
kokode ikkini tsikarawo irete kudasai 여기서 한참에 마셔주세요.
5. do:mo zikanga torenai 웬지(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
do:mo zikkanga dekinai 웬지(도저히) 실감이 가지 않는다.
6. tonikaku zisenga zyu:yo:da 어쨌든 自選이 중요하다.
tonikaku zissenga zyu:yo:da 어쨌든 실천이 중요하다.
7. kokode kabanwo orosu 여기서 가방을 내리다.
kokode kanbanwo orosu 여기서 간판을 내리다.
8. kokode sisenwo otosu 여기서 시선을 떨어뜨리다.
kokode sinsenna ku:kiwo ireyo: 여기서 신선한 공기를 넣자.
9. koremo kagoni ireyo: 이것도 바구니에 담자.
koremo kangoni hukumareru 이것도 漢字語에 속한다.
10. taihenna kotoga syo:zita 큰일이 일어났다.
to:kuni koto:ga mietekuru 먼곳에 孤島가 보인다.
11. korewo goto:ni irete hatsuonsite kudasai
이것을 어두에 넣어서 발음해 주세요.
korewo go:to:ni torareta 이것을 강도에게 빼앗겼다.

위의 각 단어들은 음소 배열과 악센트 형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나 단지 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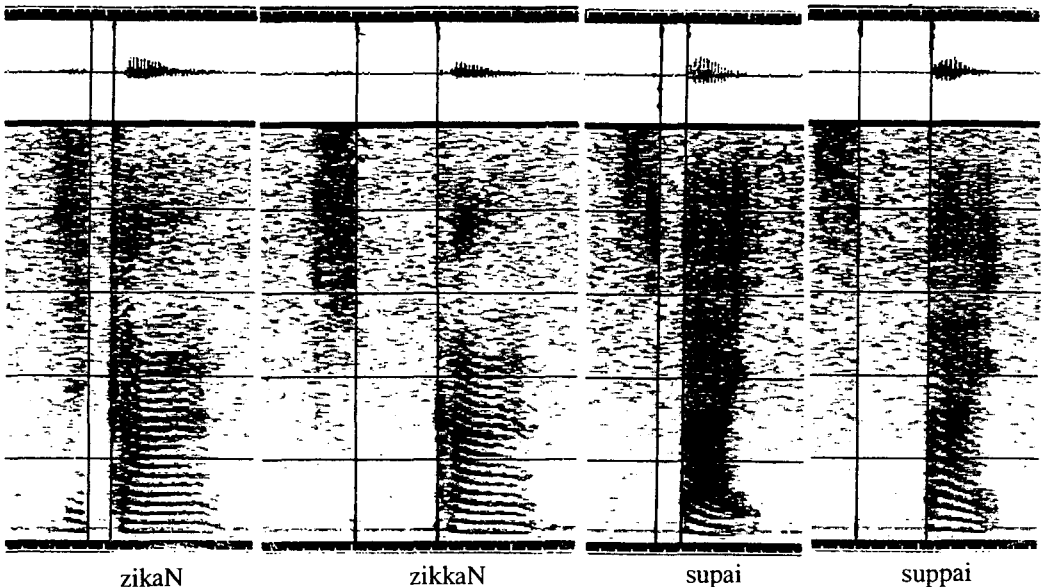
박의 유무에 따라 의미를 구별하는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1에서 6까지는 촉음을, 7에서 9까지는 발음(撥音)을, 10에서 11까지는 장음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3.3. 분석방법

각 피험자들에게 발화 리스트에 해당되는 단어를 단독으로 발음하고, 또 문장 안에 넣어서 발음을 하게 했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기대하기 위하여, 문중 발음을 먼저 하게 하고, 연속적으로 단어를 발음하게 하는 순서를 취했다. 발음은 각각 4회씩 하게 하여 녹음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계량적으로 나타낸 수치는 단독 발음만을 사용하여 평균을 냈다. 그리고 녹음한 자료는, 음성 분석 기기인 音聲錄聞見(동경대학 음성언어 연구소 제작)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4. 결과

이번 실험에서는 폐쇄음의 VOT치는 모음부에 넣고 해당 자음에 넣지 않았다. 이는 VOT치에 따라 폐쇄구간의 길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동경방언 화자와, 한국인 화자 그리고 일본어의 秋田방언 화자의 발음을 분석한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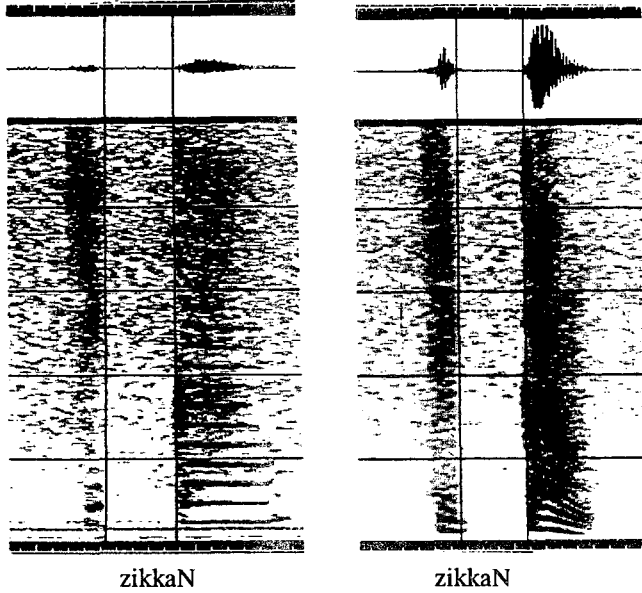


<그림 1> 동경방언 화자의 발음 zikan/zikkan, supai/suppai

동경방언 화자의 zikan/zikkan, supai/suppai의 발음 중, 각각 -k와 -kk-, -p와

-pp-를 비교해 보면, 지속시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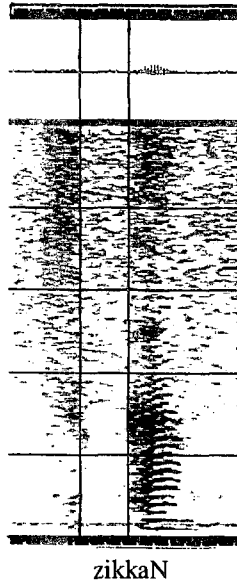
다음은 동경 방언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인 화자의 발음을 관찰해 보자.



<그림 2> 한국인 화자(CK와 YM)의 발음 zikkaN

한국인 화자에 있어서는 동경방언 화자보다 폐쇄구간의 지속시간이 짧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측정치는 <표 1>에 명시한다.

같은 단어의 秋田방언 화자의 발음을 보면 다음과 같이 관찰된다.



<그림 3> 秋田방언 화자의 발음 zikkaN

이상에서 관찰되는 대로, <그림 1>에서와 같이 동경방언 화자의 발음에서, 폐쇄음의 홀자음과 겹자음의 폐쇄구간의 시간 차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양 방언 화자의 발음을 동경방언 화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겹자음의 폐쇄구간의 지속시간이 <그림 1>과 비교했을 때 짧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실험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각 방언 화자의 발음을 매회 측정하여 평균을 낸 값이다.

<표 1>은 폐쇄음의 홀자음과 겹자음의 폐쇄구간의 지속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폐쇄음의 지속시간(ms.).

	東京	CK	KJ	KO	KH	YM	LM	YP	秋田
supai	0.100	*1)	0.096	0.120	*2)	0.108	0.114	0.064	0.122
suppai	0.240	*1)	0.117	0.193	*2)	0.313	0.186	0.193	0.153
kite	0.114	0.165	0.171	0.159	0.150	0.041	0.084	0.107	0.108
kitte	0.268	0.262	0.206	0.195	0.219	0.258	0.185	0.262	0.196
totemo	0.089	0.133	0.153	0.113	0.195	0.111	0.085	0.066	0.074
tottemo	0.208	0.287	0.247	0.155	0.245	0.319	0.273	0.219	0.197
iki	0.106	0.185	0.168	0.143	0.167	0.173	0.102	0.084	0.056
ikki	0.253	0.191	0.252	0.183	0.288	0.278	0.225	0.232	0.138
zikan	0.092	0.146	0.162	0.131	0.128	0.103	0.077	0.086	0.062
zikkan	0.250	0.244	0.257	0.155	0.251	0.214	0.269	0.194	0.183
zisen	0.108	0.118	0.108	0.080	0.083	0.104	0.238	0.105	0.127
zissen	0.237	0.213	0.194	0.185	0.255	0.233	0.267	0.200	0.224

*1)과 *2)의 표시가 된 CK와 KH의 발음 중 supai/suppai의 매회의 발음에 있어서 무성음화 현상³⁾이 나타나므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 외의 화자에 있어서도 무성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 계산할 때는 제외시켰다.

또한 모든 피험자에 있어서 폐쇄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일률적인 시간의 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피험자의 발음 경향을 살펴보면, 동경방언 화자에 있어서는 폐쇄구간의 길이 차가 평균 2.39:1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축음으로 형성되는 박이 한 개의 독립된 박으로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유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 화자 중 YM의 경우는 오히려 동경방언 화자보다도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 2, 3>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화자의 경우 특수박에 상관없이 한 개의 음절의 지속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개인적인 발음의 습관으

3) 무성음화 현상: 일본어에서는 모음 중 험모음, /i/나 /u/가 무성 자음 사이에 나타나고 약센트가 놓이지 않을 경우 모음이 무성음화 한다(김선희1993a).

로 판단된다. 또한 발음교육을 받을 때 특히 강조되었던 부분이라 의식적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화자 자신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중국인 화자에 있어서는 비교적 동경방언에 근접한 길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일본어 학습력은 한국인 화자보다 짧은 데 비하면, 장단음의 구별이 확실한 모국어의 발음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秋田방언 화자의 발음을 보면, 같은 일본어 화자이지만 그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Syllabeme 방언이라는 학설을 뒷받침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그렇다고 杉藤(1986)에서처럼 연령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젊은층의 화자의 발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방송매체나 교육 현장에서의 표준어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실험 결과만으로 방언 전체의 특징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다음은 음절말에 위치하는 비음의 지속시간을 관찰하기 위해, 비음에 따라 최소대립어를 형성하는 단어의 음절 길이를 측정할 수치이다. 비음이 있는 음절일 경우는 비음이 연결되는 앞음절과 길이를 합한 수치이다.

<표 2> 비음의 지속시간(ms.).

	東京	CK	KJ	KO	KH	YM	LM	YP	秋田
kaban	0.143	0.137	0.140	0.145	0.150	0.121	0.145	0.140	0.161
kanban	0.293	0.297	0.360	0.273	0.377	0.310	0.342	0.273	0.210
sisen	0.131	0.193	0.173	0.179	0.161	0.085	0.175	0.205	0.179
sinsen	0.321	0.286	0.327	0.245	0.371	0.298	0.378	0.278	0.288
kago	0.127	0.156	0.191	0.181	0.212	0.113	0.199	0.165	0.141
kango	0.306	0.246	0.387	0.266	0.410	0.291	0.326	0.330	0.237

비음에 있어서는 동경방언 화자의 경우, 약 두 배 이상의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화자의 경우는, 한국인 화자 중 경상도방언 화자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秋田방언 화자의 경우는 가장 짧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방언의 특색이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장모음의 지속시간을 관찰하기 위해, 모음의 길이에 따라 서로 최소대립어를 형성하는 단어의 단모음과 장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표 3> 장음의 지속시간(ms.).

	東京	CK	KJ	KO	KH	YM	LM	YP	秋田
koto	0.096	0.160	0.153	0.134	0.118	0.085	0.132	0.156	0.092
koto:	0.296	0.198	0.245	0.208	0.327	0.130	0.312	0.299	0.219
goto:	0.061	0.082	0.129	0.082	0.071	0.057	0.095	0.106	0.097
go:to:	0.189	0.153	0.136	0.132	0.194	0.189	0.260	0.225	0.132

장모음은, 동경방언 화자의 경우 단모음에 비해 3.08배의 시간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거의 모두가 이에 못 미친다.

다음은 위의 측정치를 폐쇄음, 비음, 장모음으로 묶어서 평균치를 낸 결과이다.

<표 4> 각 피험자의 폐쇄음의 폐쇄 구간, 음절말 비음, 장음의 지속시간.

	東京	CK	KJ	KO	KH	YM	LM	YP	秋田
폐쇄음의 폐쇄구간(倍)	2.39	1.60	1.48	1.43	1.82	2.53	2.0	2.53	1.98
음절말 비음(倍)	2.29	1.70	2.13	1.55	2.21	2.81	2.01	1.72	1.52
장음(倍)	3.08	1.45	1.35	1.74	2.76	2.09	2.51	2.0	1.84

<표 4>는 각 피험자의 발음을 총괄하여 계산한 것으로, 동경방언 화자의 발음과 비교할 수 있다.

이상에서 관찰된 것처럼, 동경방언 화자의 발음 경향으로부터, 특수박이 가지는 시간 길이는 한 개의 독립된 박으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시간 길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에 있어서는, 발화자의 개인적인 발음 습관, 해당 모국어의 음성적 특징의 영향, 그리고 일본어 학습경향에 따라 동경방언 화자에 근접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고찰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 수를 제한하였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리라 본다. 여기서 밝혀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어의 동경 방언 화자에 있어서, 특수박의 시간 길이는 음절의 형태를 지닌 단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단일의 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 외국인 학습자에 있어서는 특수박에 대해 동경방언 화자만큼의 길이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반드시 일본어 학습의 경력이 많거나 또는 일반 회화가 유창하다고 해서 길이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학습력이 긴 서울방언 화자(CK, KO)와 일본어 능력이나 학습력에서 모두 그에 못 미치는 경상도방언 화자(YM)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그보다 오히려, 특수박의 길이에 관하여 인식하고,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경우 더 정확한 발음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단음의 구별이 음운론적으로 기능하는 방언 화자의 경우, 일본어를 발음할 때 길이에 대한 감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어 중에서도 경상도방언 화자와 중국어 화자에 있어서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3) 秋田방언 화자에 있어서는 기존의 음운론적인 입장에서 주장되어 온 syllabeme 방언의 구별이 단순히 현재의 방언 화자들의 특징이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즉, 표준어 교육의 영향에 의한 개인의 의식차에 따른 발음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젊은층에서 박(拍)언어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더 폭넓은 음성학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면, 특수박이 지니는 시간 길이는 일본어에 있어서 특수한 단위이며, 이것이 음운론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식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칫, 음성 교육에 있어서 운율에 관한 요소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언어학적 기능면에서나, 음성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발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취급하지 않았으나, 김선희(1993c)의 지각실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외국인 학습자에 있어서는, 생성면에서는 동경방언 화자의 발음에 못 미치나, 지각면에서는 거의 모든 화자들이 동일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각적으로 길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를 제한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각 분야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관찰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선희(1993a), 韓國語의 音的 諸현상과 피치와의 관계, 동경대학 음성언어 의학연구소 제 296회 콜로퀴엄 발표요지.

- _____ (1993b), 한국어의 폐쇄/파찰/마찰자음의 음향/생리적 특징, 『筑波대학 松本克己교수정년퇴직 기념논문집』.
- _____ (1993c), 일본어의 특수박의 길이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龜井孝(1956), 音韻の概念は日本語に有用なりきや, 『國文學 15』.
- 金田一春彦(1967), 「音節, 모라 및 拍, 日本語音韻の研究」, 東京堂出版.
- _____ (1988), 「日本語(上)」, 岩波新書.
- 柴田武(1962), 「音韻, 方言學概說」, 武藏野書院.
- 杉藤美代子(1986), 促音及び長音, 撥音にアクセントを置く發話の年齢による變化とその音響的特徴, 『國語學』.
- _____ (1991), 音節か拍か, 『講座日本語教育2』, 明治書院.
- ソシュール(1940), 小林英夫譯, 「一般言語學講義」, 岩波書店.
- 服部四郎(1960), 「言語學の方法」, 岩波書店.
- 日下部文夫(1962), 東京語の音節構造, 『音聲の研究 10』, 日本音聲學會.
- Beckman, M. E.(1982), Segment duration and the 'mora' in Japanese, *Phonetica* 39.
- Han, M. S.(1992), The timing control of geminate and single stop consonants in Japanese; a challenge for nonnative speakers, *Phonetica* 49.
- Homma, Y.(1981), Du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stops and vowels, *Journal of Phonetics* 9.
- Sato, Y.(1993), The durations of syllable-final nasals and the mora hypothesis in Japanese, *Phonetica* 50.
- Trubetzkoy, N. S.(1958), 「音韻論의原理」, 長尾善郎譯(1980), 岩波書店.
- Yukei, M. and S. Kiritani(1990), Perception of mora sounds in Japanese by non-native speakers of Japanese, *Ann.Bull.RILP No. 24*.

접수일자: 99년 8월 20일

게재결정: 99년 10월 13일

▶ 김선희 (Seonhi Kim)

주소: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와우리 산 1-1

소속: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일본어학과

전화: 0331) 220-2590

전자우편: tsukuba@unitel.co.kr